

다시 주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⑤

今者能除貪嗔癡等三毒心
금자능제탐진치등삼독심
是則名爲度得三大阿僧祇劫
是則名爲度得三大阿僧祇劫
시즉명위도득삼대아승지겁
未世衆生愚癡鈍根不解如來
말세중생우치둔근불해여래
甚深妙義三阿僧祇秘密之說
심심묘의삼아승지비밀지설
遂言此塵劫 方得成佛
수언역차진겁 방득성불
未劫豈不疑誤修行之人
말겁경불의오수행지인
還善提擡也
회보리도야

변지피안아 고명육바리밀

또 물었다. "보살마하살이 삼취정계(三聚淨戒)를 가지고, 또 육바리밀을 행해야 불도를 이룬다 하셨는데, 지금 수행자로 하여금 오직 마음만 관하고 계행을 닦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했다. "삼취정계란 바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니, 일독(一毒)만 제거해도 한없는 선을 이루게 된다. 취(聚)란 모았다는 뜻인데, 삼독을 제거하면 곧 세 가지 무량한 선만 있게 된다. 그 선이 모두 마음에 모이게 되므로 삼취정계라 한다. 또 육바리밀이란 곧 육근을 맑게 하는 것이니, 인도에서는 바라밀이라 하고 한문으로는 피안(彼岸)에 이룬다는 뜻이다. 육근이 청정하여 세상 일에 물들지 않으면 곧 번뇌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르게 되므로 육바리밀이라 한다.

又問曰 如經所說 三聚淨戒者
우문왈 여경소설 삼취정계자
舊斷一切惡 舊修一切善
서단일체악 서수일체선
舊度一切衆生 今者能言三毒心

지금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삼독심만 없애면 이것이 곧 삼 아승지겁을 뛰어넘는 것이 되는데, 말세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하여 부처님의 깊고 묘한 삼 아승지겁의 비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한량없는 겁을 지내어만 성불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어찌 말세에 수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알고 의심을 내게 하여 보리도(菩提道)에서 회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又問曰 菩薩摩訶薩

一毒만 제거해도 한없는 선 이뤄

三毒 없애면 피안의 세계 도달

우문왈 보살마하살
由持三聚淨戒
유지삼취정계
行六波羅密方成佛道
행육바리밀방득성불도
今令學者 唯持觀心
금령학자 유지관심
不修戒行 云何成佛
불수계행 운하성불
答曰 三聚淨戒者
답왈 삼취정계자
則除三毒心也
즉제삼독심야
除一毒成無量善
제일독성무량선
聚善會也 以除能三毒
취자회야 이제능삼독
卽有無量善 普會於心
즉유삼무량선 보회어심
名三聚淨戒 六波羅密者
명삼취정계 육바리밀자
卽淨六根 胡名波羅密
즉정육근 호명바리밀
演說達彼岸 六根清淨
한언달피안 육근청정
不染世塵 卽是出煩惱
불염세진 즉시출번뇌
便至彼岸也 故名六波羅密

서도일체중생 금자유언제삼독심
豈不義 有所戒也
기불문의 유소과야
答曰 佛所說經
답왈 불소설경
是眞實語 應無謬也
시진실어 응무무야
菩薩摩訶薩 於過去因中
보살마하살 어과거인중
修善隨行時 爲對三毒
수보살행시 위대삼독
發三善願 持三聚淨戒
발삼선원 지삼취정계
발삼선원 지삼취정계

또 물었다. "경전에는 '삼취정계란 모든 악 끊기를 서원하고, 온갖 선 닦기를 서원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하는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직 삼독심만 제거하라 하시니 이는 경문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은 진실한 말씀이라 거짓됨이 없다. 보살마하살이 과거세상에서 인행(因行)·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한)의 지위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 삼독을 없애기 위해 세 가지 서원을 세워 삼취정계를 지켰다.

김원각(사인·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서용스님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세상이 변하듯, 남과 북이 동진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7월 서울 역삼동에서 참사람운동본부 개원식을 앞두고 노구에도 불구하고 '참사람'을 역설하고 계신 스님은 "스스로 참사람임을 믿고, 참사람의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참되고 행복한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하는 법”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림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지배해왔던 남과 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6.25전쟁 발발 50주년이었다는 날에는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7대 종교 지도자들과 신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기념식을 갖고 "지난 역사를 떨쳐버리고 평화의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유일 분단국에서 세계평화의 메신저로 도약하자"며 북한어린이와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어린이를 돕는 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분단 55년만에 남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는 감격스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 1912년 충남 논산 초
· 32년 장성 백양사
만일대종사 문헌에서
득도
· 41년 일본 경도 임제
대 졸업
· 스리랑카 국립 푸리
베
니아대학 명예철학박
사
· 64년 동국대 선학원
장
· 65~74년 도봉산 무
문
관, 동화사, 백양사,
봉
암사 조실 역임
· 74~79년 조계종 5대
종정
· 현재 장성 백양사에
주석
· 저서에 《서용대종사
법어집》(절대현재의
참사람) (일제독 연
의)
(선과 현대명명) 등



면, 불자들에게 더없는 수행의 노정이었지요.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만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점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최근 인간유전자 정보를 해독해 유전자지도 초안을 완성했다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토니 블러어 영국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암 등 난치병 치료와 예방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리라는 평가와 함께 '주인형 인간'의 등장으로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인간생활에 기여하는 것보다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 과학만능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의 풍요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의 공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타기와 텔레비전과 휴대전화기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과학기술로 발명한 상품들이 인간을 더욱 여유롭게 하고 조화롭게 했나요? 그런 것이 없던 때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있으나, 나무와 풀과 물과 공기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으나, 사랑이 일방적으로 배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의 어느 농촌 마을에서는 지하수를 먹고 한 동네에서 여러 명이 암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자 매일 오존주머니가 발령됩니다. 서울 뿐이 아니에요. 오전을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파괴와 피부암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을 버리고 100년 전, 200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답도 아닙니다. 과학 문명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원리를 문제삼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과학 문명 자체는 선(善)한 것도 아니고, 악(惡)한 것도 아닙니다. 과학문명의 원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명은 사랑의 데카르트, 헤겔, 마르크스, 니체를 관통하는 이원론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을 구분짓고, 서로

적이라 이르지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뜻이 통하지는 않겠지요. 같은 민족으로, 동반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변하게 됩니다. 이 뜻을 지니고 통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너와 나, 이것과 저것, 사랑과 미움을 모두 초월한 절대적인 공동애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끼기를 마치 어머니가 그 외아들을 생각하는 듯이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사랑의 개념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이원이나 친소 관계를 초월하고 모든 이웃과 국가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절대평

등인 본연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연(無緣)의 자비라는 말이 바로 불교에서 지향하는 자비세계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고집, 나만이 제일이라는 집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존중하고 서로 돕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 본위의 생각을 용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즉, 나는 자비심을 베푸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통일이 백년 낫겠지요.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자비의 실천이라고 한다

생식은 사람의 체질을 건강하게 도와주며 몸의 균형과 다이어트식 자연 식사법입니다! 건강한 생식 다이어트 생식

아침식사 준비 끝!

Advertisement for 'Natural Food' (자연생식) featuring a portrait of Yoo Tae-jung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natural food for health and diet.

21세기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사혁명이 필요하며 그 방법론적인 대안으로서 생식을 제시한다.

Advertisement for 'Natural Food' (자연생식) with a large graphic and text: '장수마를 생식으로 활기찬 건강!'

Advertisement for 'Natural Food' (자연생식) showing various product packages and their benefits.

Advertisement for 'Natural Food' (자연생식) highlighting 'Natural Food' (자연생식) and 'Natural Food' (자연생식) as healthy options.

Advertisement for 'Natural Food' (자연생식) featuring a table with product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